



경제동향



요약

생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
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물가 소비자물가/신선식품

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
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

수출입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정의영 연구원 altophone@si.re.kr

장윤선 연구원 changys@si.re.kr

경제동향 | 요약

요약 | 5월 서울의 경제동향



생산

-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5.6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8% 감소하여 생산 부진
- 5월 제조업 출하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.6% 감소, 재고지수는 1.3% 증가하여 경기 둔화/하강 국면 지속을 시사



소비

-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4,06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.2% 증가하여 2015년 들어 가장 많고, 전국(7조 1,221억 원)의 33.8% 차지
- 5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.3%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,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.8%로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는 증가



고용

-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(0.6%) 증가
-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.3%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, 실업률은 4.4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감소



물가

- 2015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.7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0.9% 소폭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
- 상품물가지수(-0.3%)는 하락한 반면 신선식품물가지수(5.0%), 서비스물가지수(1.7%)는 상승



부동산

-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 등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0.3% 상승한 101.4 기록
-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재건축 이주 발생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, 전세 매물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.7% 상승한 113.9 기록



금융

- 서울의 5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07조 2,967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1% 증가
- 서울의 5월 은행 가계대출은 196조 1,069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1% 증가
- 서울의 5월 보증금액,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1,182억 원과 5,54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2.9% 감소, 4.5% 증가
- 도·소매업에 대한 신용 보증은 전월 대비 4.3% 감소한 434.4억,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 보증은 전월 대비 3.9% 증가한 278.5억 원
-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증지원 건수는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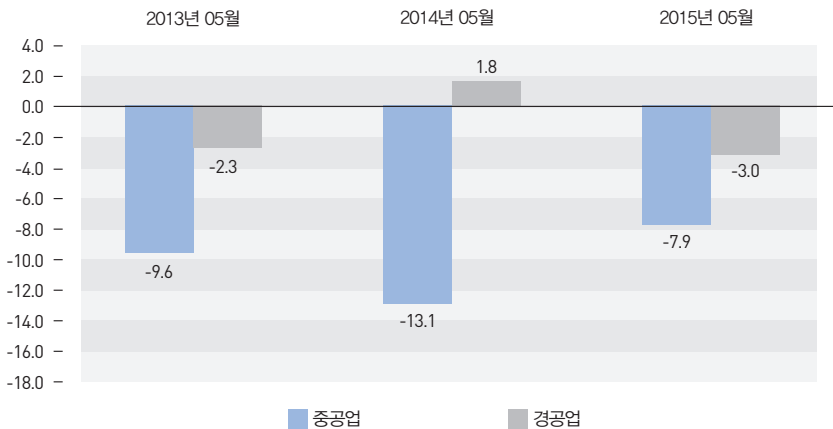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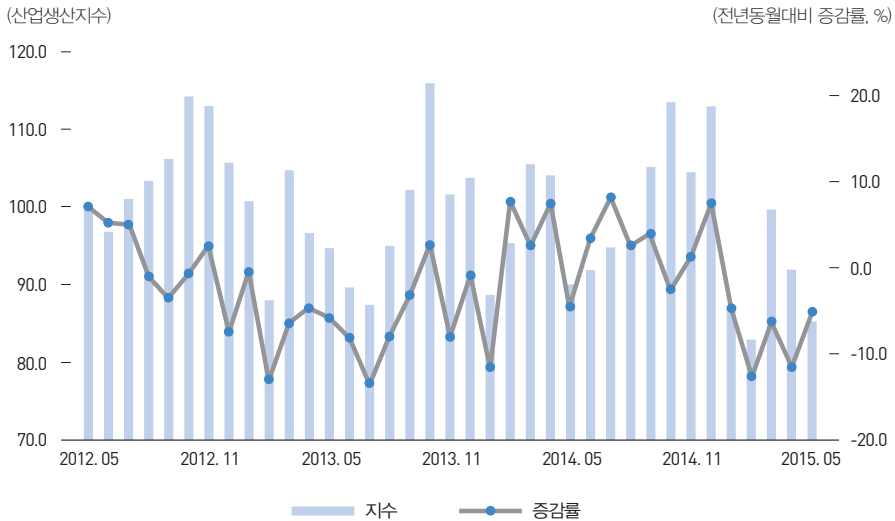
수출입

- 서울의 5월 수출은 47.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.8% 감소,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5월 수입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.7% 증가, 품목별로는 원유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생산

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5.6(2010=100)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8% 감소

-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5월까지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
- 중공업 부문은 7.9%, 경공업은 3.0%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여 생산 부진
-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화학제품(45.8%), 고무 및 플라스틱(28.9%), 의복 및 모피(4.5%) 등은 증가한 반면 가죽 및 신발(-23.5%), 기계장비(-22.5%), 인쇄 및 기록매체(-18.2%) 등은 감소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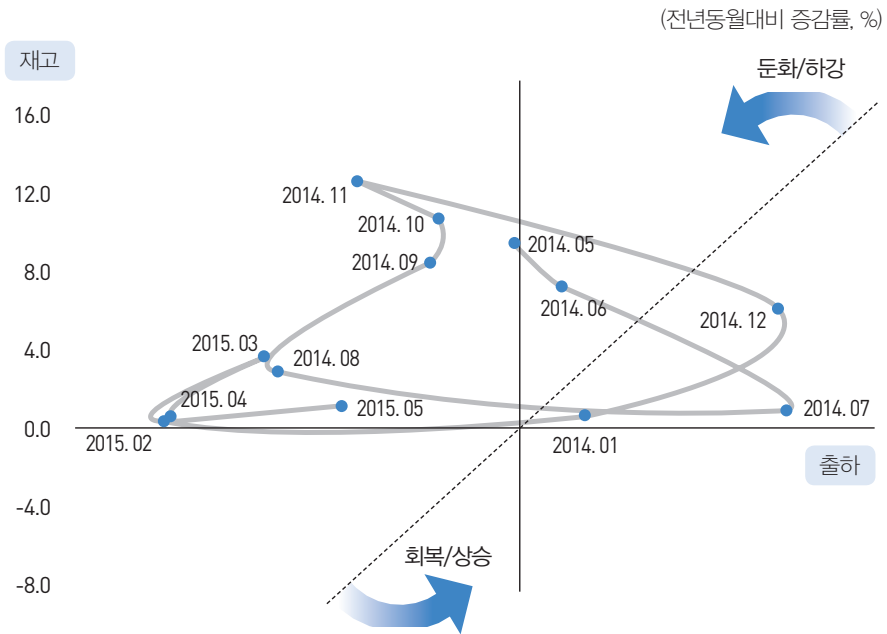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경제동향 | 생산

출하·재고 순환

서울의 5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,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5월 출하지수는 89.1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3.6% 감소
- 서울의 5월 재고지수는 119.9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3% 증가
- 재고·출하 지수는 경기가 둔화/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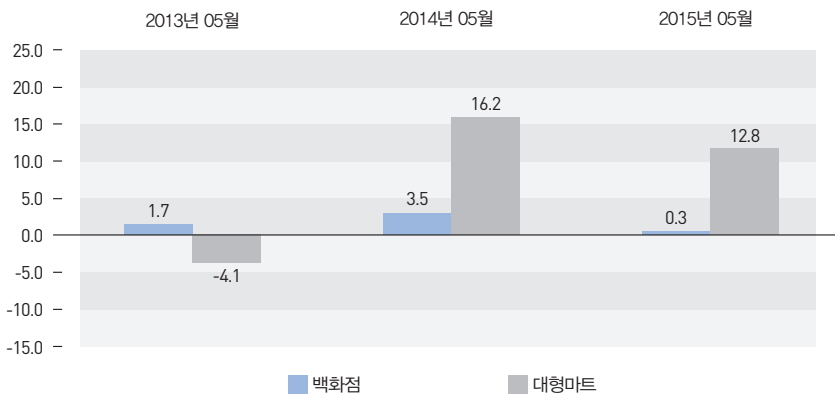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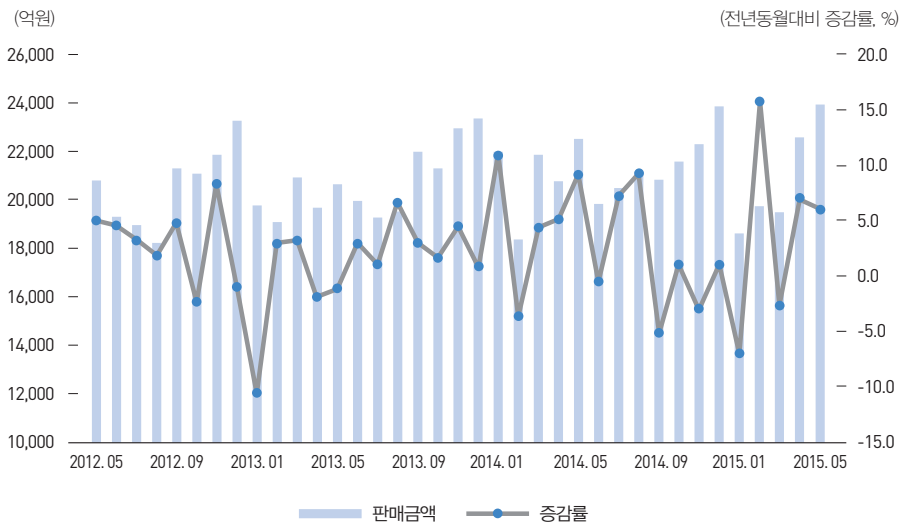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소비

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15년 들어 가장 높고, 전년 동월 대비 6.2% 증가

-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4,068억 원으로 전국(7조 1,221억 원)의 33.8%
- 5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2,070억 원으로 전국(2조 6,766억 원)의 45.1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,209억 원으로 전국(4조 4,456억 원)의 27.0%를 차지
-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(0.3%)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 판매액은 급증(12.8%)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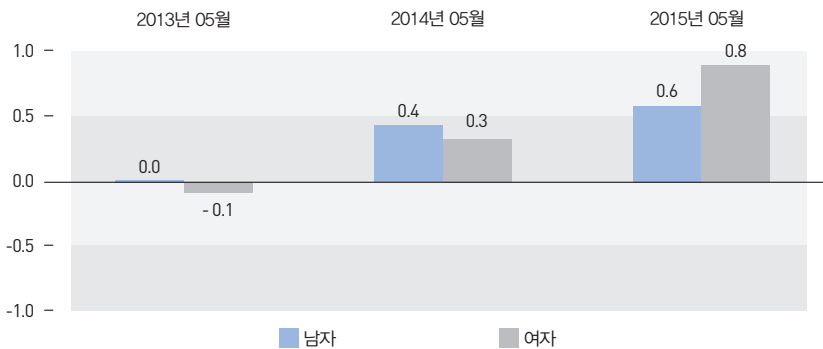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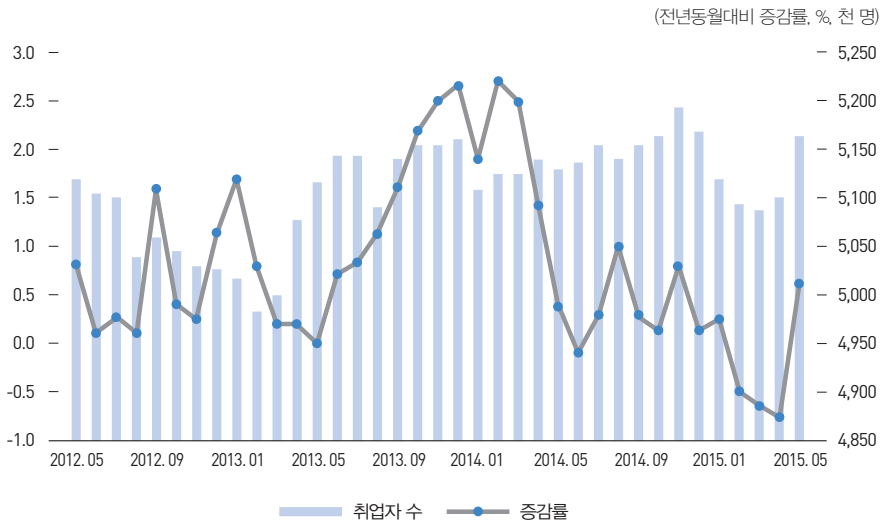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경제동향 | 고용

취업자

서울의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6% 증가

-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(0.6%) 증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 명(0.6%) 증가하고, 여자는 228만 1천 명으로 1만 7천 명(0.8%) 증가
- 산업별로 보면, 건설업이 1만 4천 명(4.3%), 도소매·숙박음식업이 5만 명(3.6%), 제조업이 1만 1천 명(2.2%), 증가한 반면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이 2만 명(-2.4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2만 1천 명(-1.0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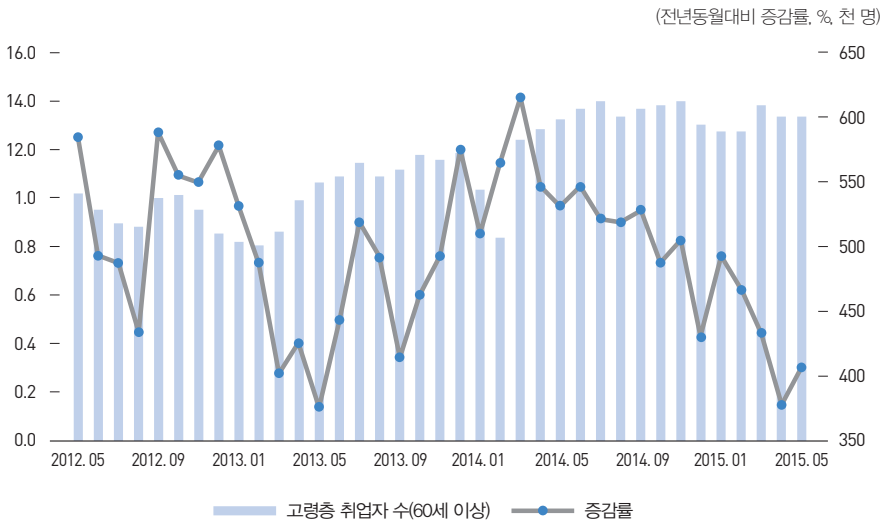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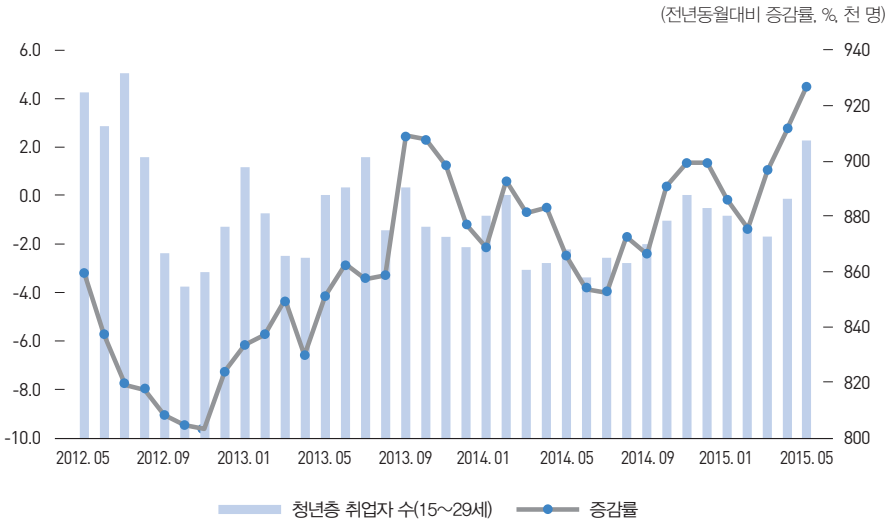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서울의 5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

- 서울의 5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9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7% 증가
- 3월부터 청년층 취업자 수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- 서울의 5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61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1% 증가하였으나 고령층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지속중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경제동향 |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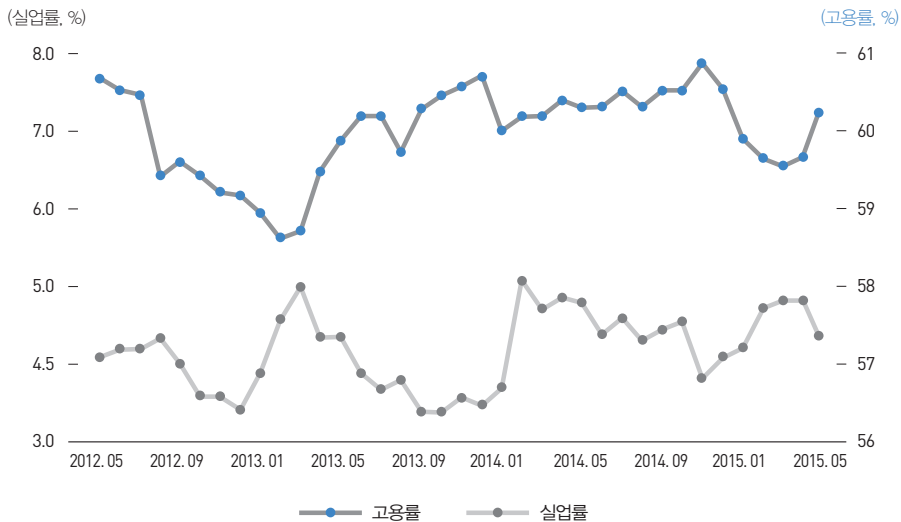
고용률 및 실업률

서울의 5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보합, 전국 보다 낮은 수준

-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.3%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70.4%, 여자는 51.1%로 모두 전년 동월과 동일
- 서울시 고용률은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높거나 같았으나, 4월부터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

서울의 5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
- 서울의 5월 실업자는 2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3천 명(-8.8%) 감소
- 실업률은 4.4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5.0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감소, 여자는 4.5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감소
- 2015년 5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8%)에 비하여 0.6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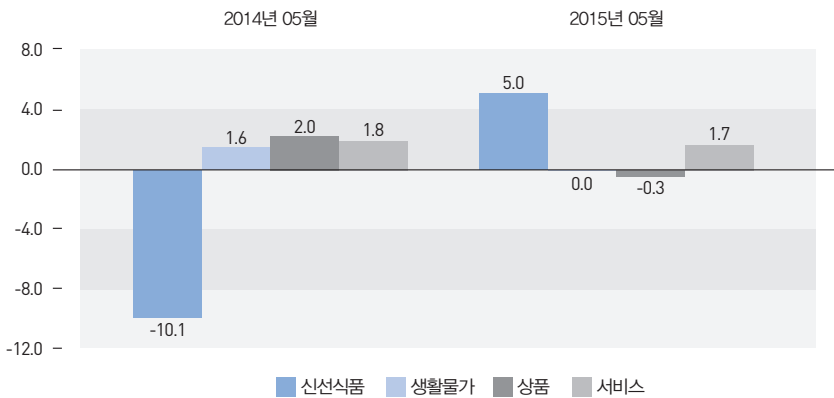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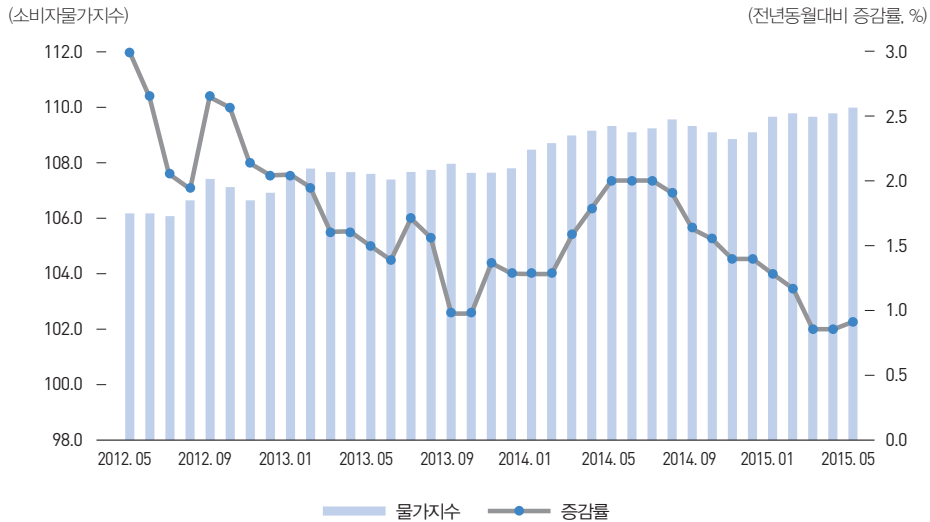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(그림)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물가

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9%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

- 2015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.7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0.9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상품물가지수(-0.3%)는 하락한 반면 신선식품물가지수(5.0%), 서비스물가지수(1.7%)는 상승



자료)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경제동향 | 부동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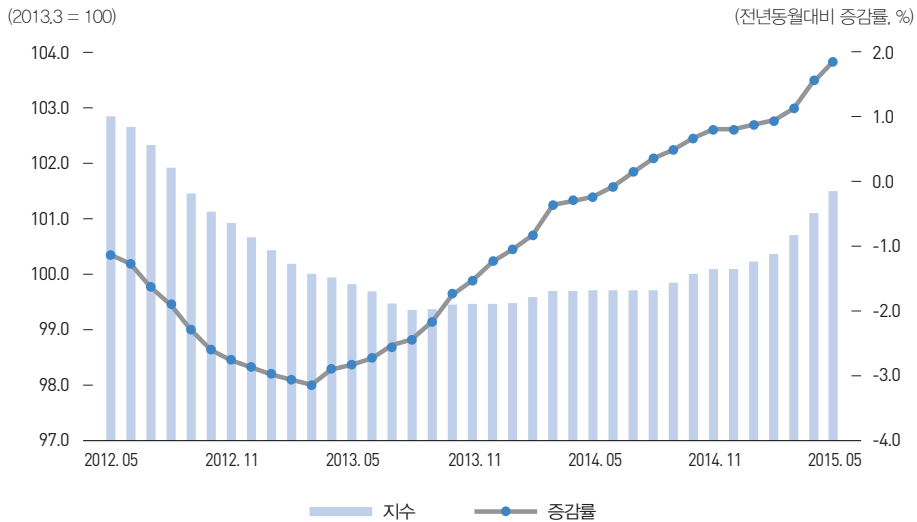
주택매매가격

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1.4로 전월 대비 0.3% 상승. 강남지역은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, 재건축 이주 수요 발생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.4% 상승, 강북지역은 매매전환 수요 및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실수요 발생 영향으로 전월 대비 0.3% 상승
 - 주요 상승지역 : 동대문구(0.77%), 강남구(0.59%), 성북구(0.54%), 강서구(0.44%)

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4.3으로 전월 대비 0.4% 상승. 이는 저금리로 인한 구매력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 효과가 결합한 결과. 수도권, 5개 광역시, 기타지방은 전월 대비 각각 0.4%, 0.5%, 0.2% 상승



자료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, 거래건수는 감소

-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(1,701만 원), 매매거래건수(12,608건)는 전월 대비 각각 0.7%상승, 8.2% 감소
- 매매 물량 공급은 제한된 가운데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거래건수는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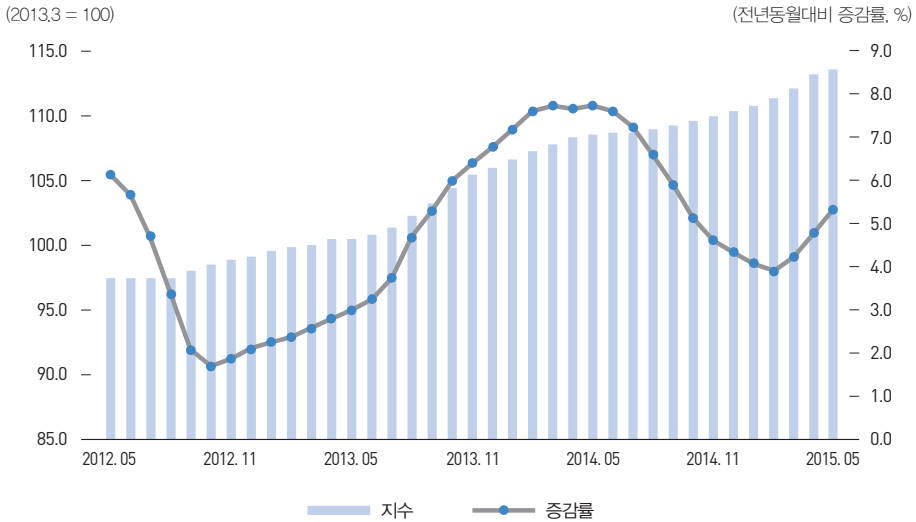
주택전세가격

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3.9로 전월 대비 0.7% 상승.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, 강남지역(0.7%)은 9호선 연장개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마곡지구 개발 효과가, 강북지역(0.6%)은 타 지역 대비 저렴한 전세 가격으로 인한 유입 증가의 영향을 받음
 - 주요 상승지역: 중랑구(1.07%), 강서구(0.93%), 성북구(0.85%), 영등포구(0.84%)

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4% 상승한 111.2기록. 이는 저금리로 인한 월세 선호와 이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결과. 수도권, 5개 광역시,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.55%, 0.31%, 0.19% 상승



자료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 대비 증가

- 평당 전세가격(1,127만 원) 전월 대비 1.6% 증가한 반면, 전세거래건수(9,473건)는 전월 대비 10.4% 감소
- 전세 공급 감소,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경제동향 | 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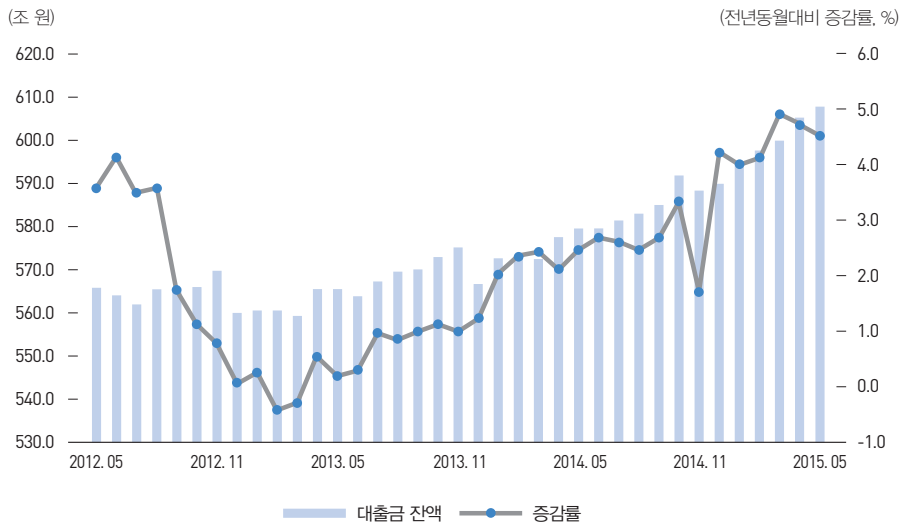
가계대출

5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607조 2,967억 원)은 전월 대비 0.1%, 전년 동월 대비 4.6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507조 4,041억 원)과 비예금은행(99조 8,926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1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.4% 증가, 3.7% 감소

5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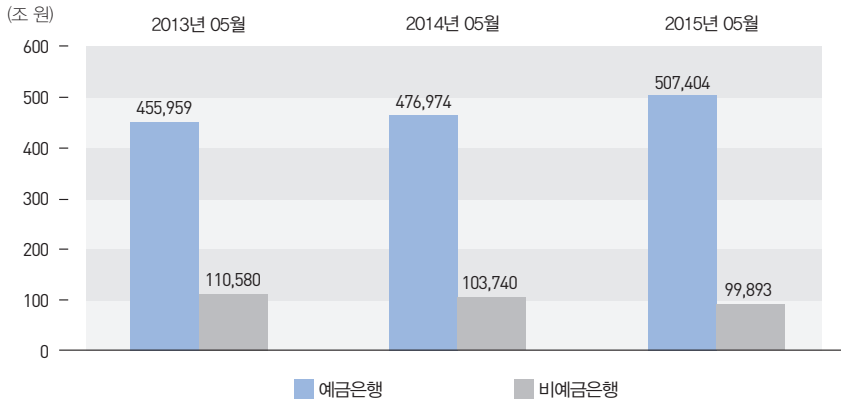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677조 6,267억 원)은 전월 대비 0.4%, 전년 동월 대비 7.6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1,292조 6,759억 원)과 비예금은행(384조 9,508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4%, 0.5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.4%, 4.9% 증가



주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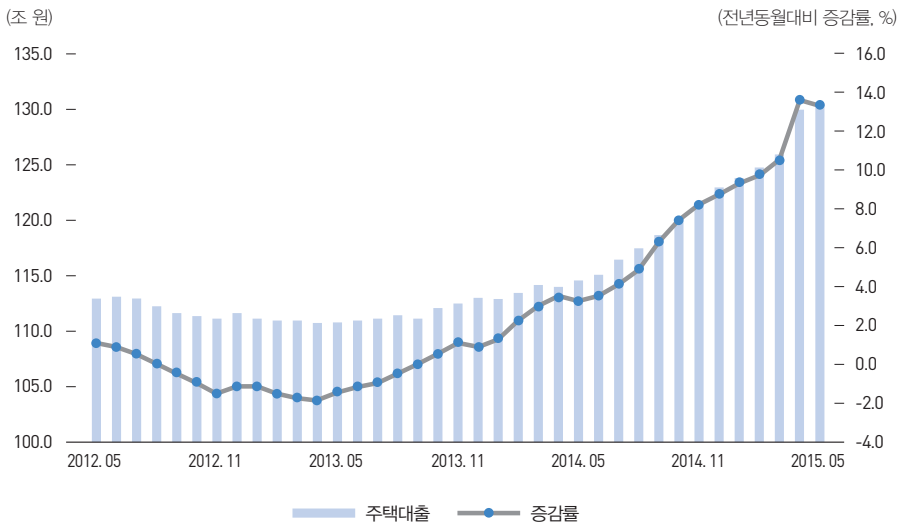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5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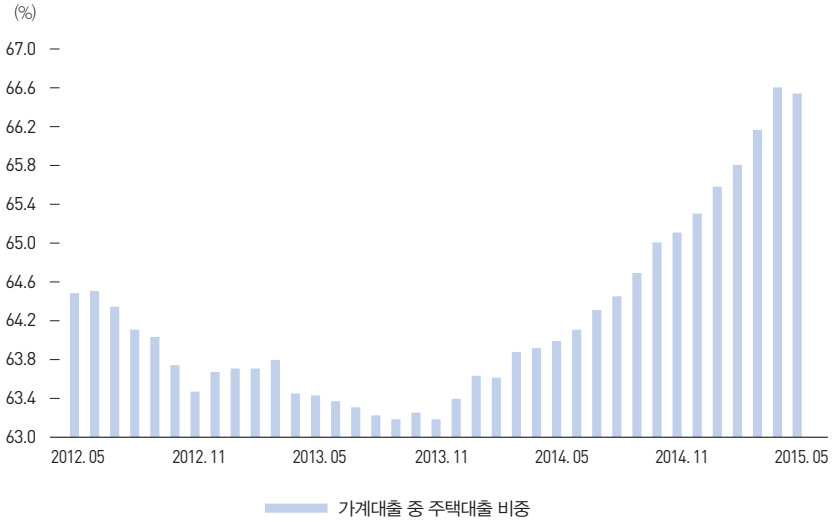
- 은행 가계대출(196조 1,069억 원)은 전월(195조 8,371억 원) 대비 0.1% 증가
- 그 중 주택대출(130조 2,561억 원)은 전월 대비 2.3% 증가하였고,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66.5%를 차지



주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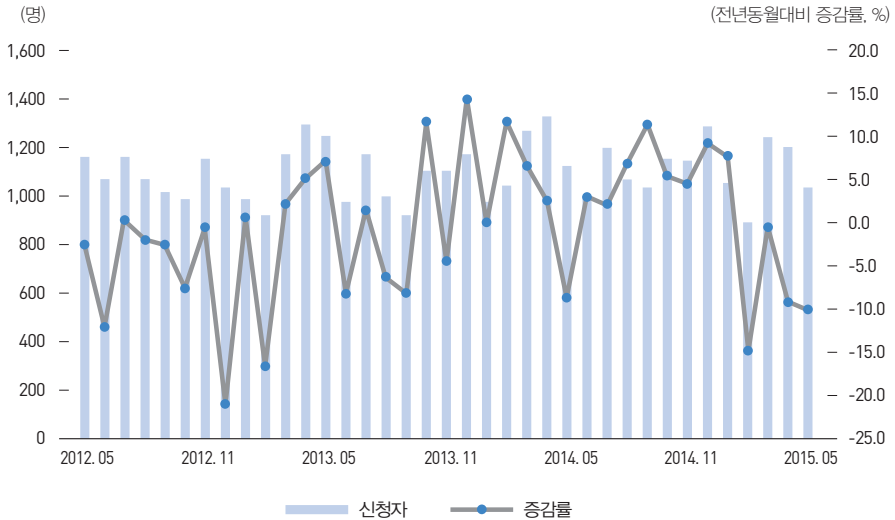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5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5월 개인파산 신청자(1,025명)는 전월(1,222명) 대비 16.1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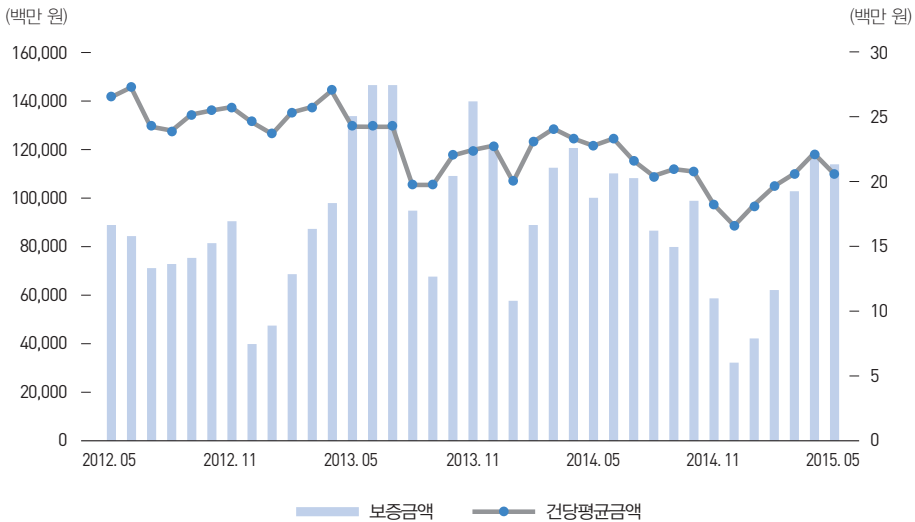
자료 대법원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신용보증

서울의 5월 보증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,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,182억 원 / 5,540건
-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2.9% 감소, 4.5% 증가, 건당 평균 지원 금액(2,130만 원)은 전월 대비 7.4% 감소
- 전년 동월 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13.4%, 24.3%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9.0% 감소
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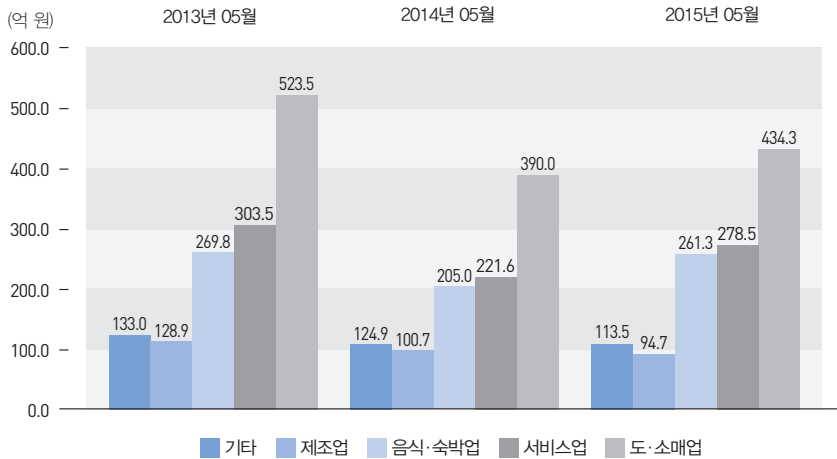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 금액 추이

도소매업, 서비스업 순으로 보증지원

-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434.3억 원으로 전체 보증의 36.7%를 차지, 도소매업 보증지원은 전년 동월 대비 11.4% 증가, 전월 대비 4.8% 감소, 도소매업 보증지원 건수는 전체 보증의 35.1%인 1,946건
- 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.7%, 전월 대비 3.9% 증가한 278.5억 원, 서비스업 보증지원 건수는 전체 보증지원 건수의 26.2%인 1,449건
- 제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94.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.0% 감소, 전월 대비 7.4% 증가한 수치, 제조업 보증 건수는 전체 보증지원 건수의 7.6%인 420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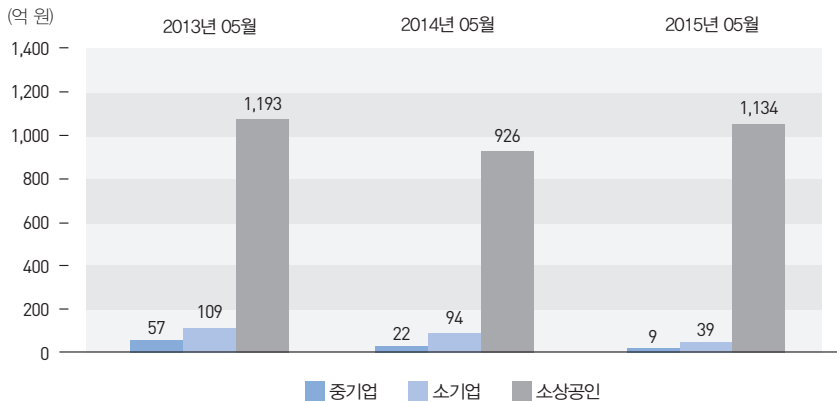
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, 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.4% 증가, 전월 대비 2.4% 감소한 1,134억 원이며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95.9% 차지.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5,471건으로 전체 보증의 98.8%
- 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.7%, 전월 대비 21.1% 감소한 39.1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3.3%를 차지.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1.1%인 62건
-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6.5% 감소, 전월 대비 54.1% 증가한 9.4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0.8%를 차지.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0.1%인 7건
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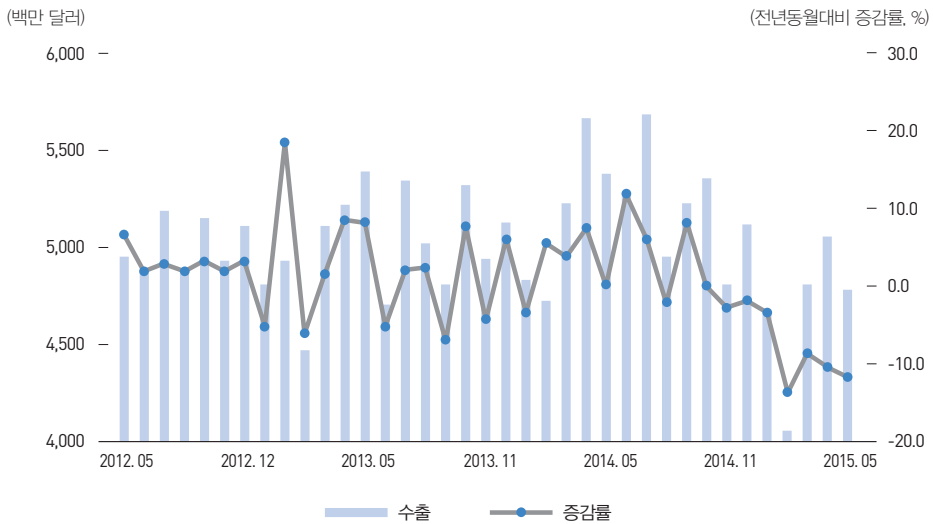
수출입

서울의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,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수출은 47.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.8% 감소하였고, 수입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.7% 증가
- 전국의 수출은 423.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.1% 감소하였고, 수입은 360.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5.2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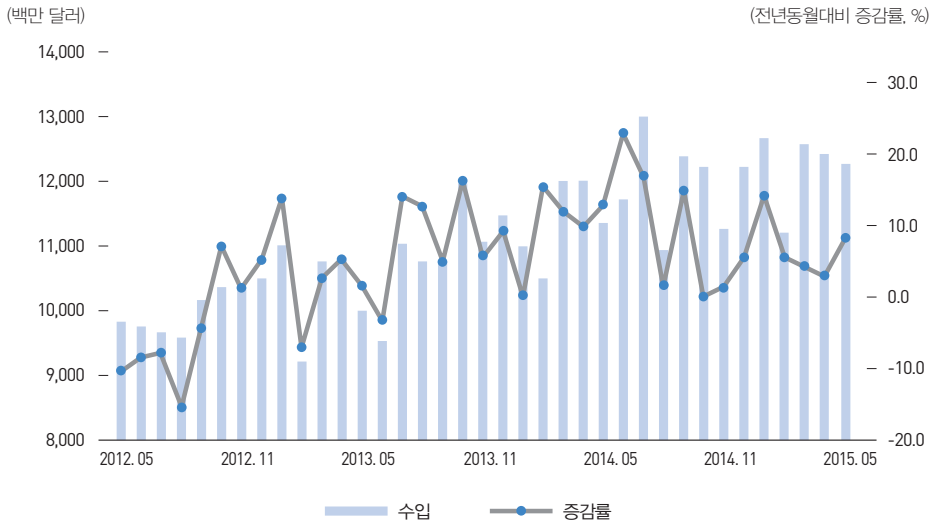
서울의 5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원유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이 450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성수지, 반도체, 석유제품, 편직물 순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1,702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, 반도체, 석유제품, 무선통신기기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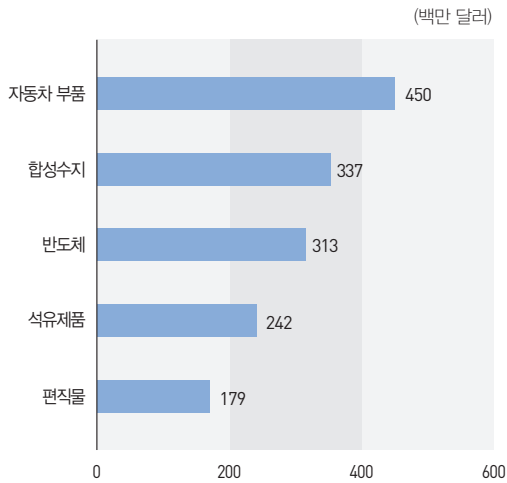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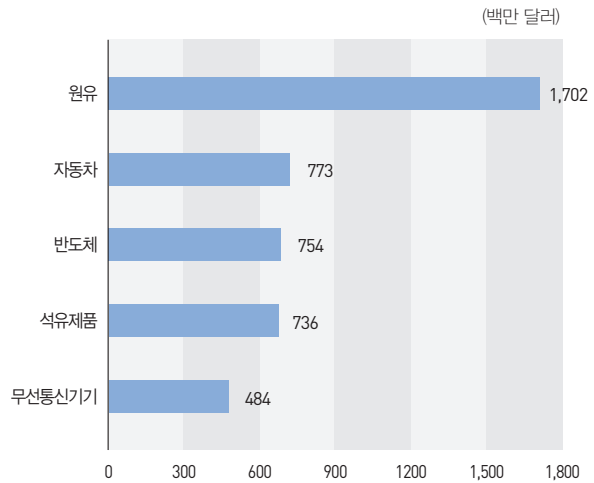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



자료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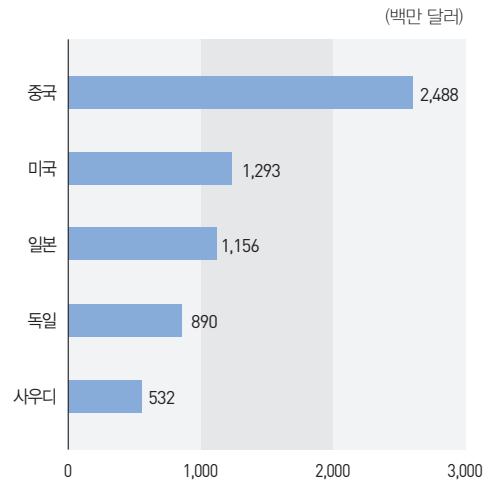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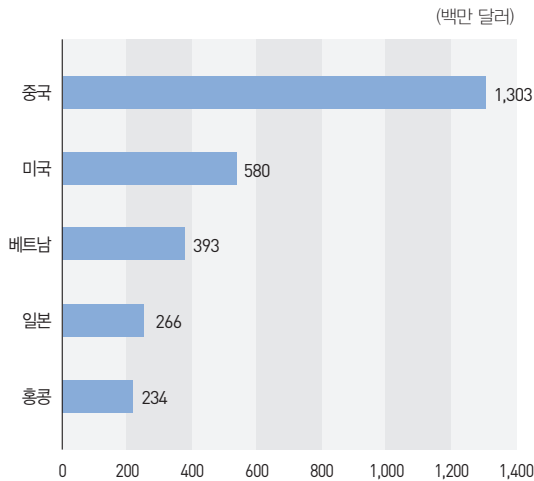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서울의 5월 수출·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10.4% 증가한 1,30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일본, 홍콩 순
-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.0% 증가하여 지난달에 이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줌.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달까지의 감소세에서 반등하여 완만한 상승세 시현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5.2% 감소한 2,48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독일, 사우디아라비아 순
- 원유 수입 증가에 따라 대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32.4%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,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외제차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.9% 증가


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〈그림〉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자료출처

자료출처
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5년 5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5년 5월 서울시 고용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5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』
- 경제통계시스템, 『<http://ecos.bok.or.kr>』
- 농수산물유통공사, 『<http://www.garak.co.kr/youtong>』
- 관세청, 『2015년 5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』
- 국민은행연구소, 『2015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』
- 부동산114, 『2015년 5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』
- 중소기업청, 『2015년 5월 중 신설법인 동향』
-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, 『<http://stat2.smba.go.kr>』
- 통계청, 『2015년 5월 산업활동동향』
- 통계청, 『2015년 5월 고용동향』
- 통계청, 『201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』
-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『<http://kosis.kr>』
-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『<http://stat.kita.net>』
- 한국은행, 『2015년 5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』
- 한국은행, 『2015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』
-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『<http://ecos.bok.or.kr>』
-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『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』